



2012년 9월 3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재고조정 불확실성이 증시를 지배하고 있다

• 경제분석

약해진 아이작 그리고 QE3 기대감

7월 산업활동: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업 호전 양극화

• 이머징마켓 동향

대형사 실적 부진, 중화권 증시 약세 연장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베이직하우스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다음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반도체 후공정, 휴대폰업종, 삼성전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8/24(금)	08/27(월)	08/28(화)	08/29(수)	08/30(목)	08/31(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19.81	1,917.87	1,916.33	1,928.54	1,906.38	1,905.12	
	등락폭	-22.73	-1.94	-1.54	12.21	-22.16	-1.26	
	등락종목	상승(상한)	279(7)	433(6)	394(9)	477(9)	290(6)	423(8)
		하락(하한)	544(1)	383(1)	410(1)	343(0)	529(3)	393(0)
	ADR	120.61	114.67	113.63	111.13	107.18	108.94	
	이격도	10 일	98.82	98.87	98.87	99.64	98.76	98.91
		20 일	100.52	100.19	99.92	100.43	99.21	99.05
	투자심리	40	30	30	30	20	20	
	거래량 (백만 주)	616	564	601	579	715	639	
	거래대금 (십억 원)	4,279	5,962	4,358	4,767	4,847	4,394	
코스닥	코스닥지수	497.51	493.83	499.53	505.32	505.64	508.35	
	등락폭	-1.83	-3.68	5.70	5.79	0.32	2.71	
	등락종목	상승(상한)	374(7)	324(17)	559(15)	616(26)	377(14)	585(11)
		하락(하한)	572(2)	621(11)	366(3)	313(3)	563(3)	348(1)
	ADR	112.30	102.77	104.18	105.66	103.42	108.05	
	이격도	10 일	101.97	100.84	101.57	102.23	101.88	101.99
		20 일	104.04	102.96	103.78	104.57	104.24	104.35
	투자심리	90	80	80	80	80	80	
	거래량 (백만 주)	641	678	672	683	752	679	
	거래대금 (십억 원)	2,317	2,262	2,457	2,624	2,644	2,36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350.8	945.6	1,090.7	140.4	120.9	293.1	79.9	32.7	307.6	43.6
	매도	2,209.0	994.5	1,185.9	147.2	200.5	278.3	80.5	39.9	202.7	41.4
	순매수	141.9	-48.9	-95.2	-6.8	-79.6	14.8	-0.6	-7.2	104.9	2.2
	08월 누계	-4,702.7	4,999.4	-124.6	712.5	246.4	-1,723.0	-224.5	-46.1	984.5	-172.1
	12년 누계	-10,246.4	11,638.4	2,327.4	1,641.0	2,313.3	-3,154.2	-1.0	416.7	581.8	-3,719.4
코스닥	매수	2,202.3	77.0	92.1	11.6	15.4	26.4	5.0	4.2	26.4	16.8
	매도	2,208.4	71.3	88.6	8.5	15.7	34.5	5.1	2.7	19.4	19.8
	순매수	-6.1	5.7	3.5	3.1	-0.3	-8.1	-0.2	1.6	7.0	-3.1
	08월 누계	-102.1	39.8	130.5	0.8	15.5	-18.8	-20.4	14.4	112.8	-68.2
	12년 누계	957.7	-87.4	-330.9	46.3	56.0	-453.9	-50.9	-42.8	103.9	-539.4

재고조정 불확실성이 증시를 지배하고 있다

8월 월간 밴드	1,750-1,900pt
2012년 하반기 밴드	1,750-2,100pt
12MF PER	8.8배
12MF PBR	1.03배
Yield Gap	8.6%P

- ▶ 잭슨홀회의 : 고용이 없으면 통화정책이 있다, 9월 미 고용지표에 주목하자
- ▶ 한국증시 유동성은 재고부담이 적은 미디어주, 바이오주, 게임주에 몰리고 있다
- ▶ 재고조정에 대한 우려가 시가총액 대형주, 제조업 주가를 약세로 이끌고 있다

QE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4가지 비용

미국 경제의 3가지 약재

또 한 번 등장한 발언 "필요하면 통화정책 쓰겠다"

■ 버냉키 연준의장 잭슨홀회의 연설 : 고용이 없으면 통화정책이 있다

8월 31일 잭슨홀회의에서 버냉키 연준의장은 "Monetary Policy since the Onset of the Crisis"라는 연설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의 QE3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4가지 비용을 언급했다. 통화정책의 4가지 비용인 금융시장 교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비정상적인 레버리지, 투자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버냉키 연준의장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QE3)를 좀 더 신중하게 써야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4가지 비용을 검토해보면 QE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버냉키 연준의장은 느린 경제회복이 구조적인 장기성장 둔화보다는 3가지 단기악재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3가지 단기악재인 주택시장, 재정절벽, 유로존 재정위기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미국정부, 유로존 정부, 중앙은행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설의 결론에서 버냉키 연준의장은 QE3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게다가 통화정책이 재정정책 대신 재정위기나 은행위기를 해결하는 미세조정을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다만 버냉키 연준의장은 필요시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새로운 통화정책을 쓰겠다고 밝혔다.

<표 1> QE(Large Scale Asset Purchase)의 4가지 비용

비용	현황 분석
국채 시장 등 금융시장 교란	연준의 국채, MBS 등 자산 매입은 해당 시장의 유동성 축소, 민간투자자 축소로 인해 금융자산에 대한 적정 평가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미국 국채에 대한 높은 민간투자자 비중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교란은 크지 않음
연준 출구전략 신뢰 상실,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연준에 대한 신뢰상실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가능하나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필요시 초과지준부리를 인상하거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통제할 수 있음
낮은 장기금리, 높은 단기금리로 인해 비정상적인 레버리지 증가	극히 낮은 장기금리는 비정상적인 레버리지 증가를 자극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시장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차입행위는 없는 상황, 추후로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
연준의 금융자산 투자손실	연준의 금융자산 투자손실 여부보다는 금융자산 투자를 통해 미국 가계, 기업, 정부가 얻는 결실이 더 중요함

자료: FRB, 한국투자증권

<표 2> 미국 경제 3가지 위협요소(headwinds)

요인	현황 분석
여전히 느린 주택시장 회복	주택시장은 현시점에서 요구되는 속도보다 느리게 회복되고 있음 현재 경제성장 기여도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음
연방정부,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불확실성, 재정절벽	부채한도 상향, 재정절벽 등 이슈에 대해 조기대처 실패시 미국경제 회복은 또다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전망
금융시장 불확실성 유로존 재정위기	유로존 재정위기는 무역, 자본수지 양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추진해야 함

자료: FRB, 한국투자증권

미국 고용지표가 중요해 졌다.

버냉키 연준의장의 책순회회의 연설 전문을 읽은 이후 느낀 점은 첫째는 "버냉키 연준의장은 2009~2012년간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높다고 자평하고 있다", 둘째 "버냉키 연준의장은 주택시장 회복속도가 통화정책 유무를 결정할만큼 빠르지 않다고 느낀다", 셋째 "버냉키 연준의장은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결국 9월 7일 발표되는 미국 비농업취업자수가 8월 10만명 이하로 발표된다면 9월 13일 미국 FOMC QE3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통화정책 기대가 재정정책 기대보다 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간의 지지율이 오차범위에서 경합하고 있고 재정절벽 회피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정정책보다는 미국 통화정책이 가까이에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에 "희망과 변화(Hope and Change)"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판을 휩쓸었지만 2012년 대선에는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에 지지율이 추격당하고 있다.

[그림 1] 오바마 대통령, 2012년은 캐치프레이즈는?



자료: Economist, 한국투자증권

리더십이 약해지면 말이 많아진다

정책 기대와는 다르게 실적 추정치는 하향되고 있다.

중국 제조업 PMI는 경기 둔화를 드러내고 있음

08년 재고조정은 가파르게 나타났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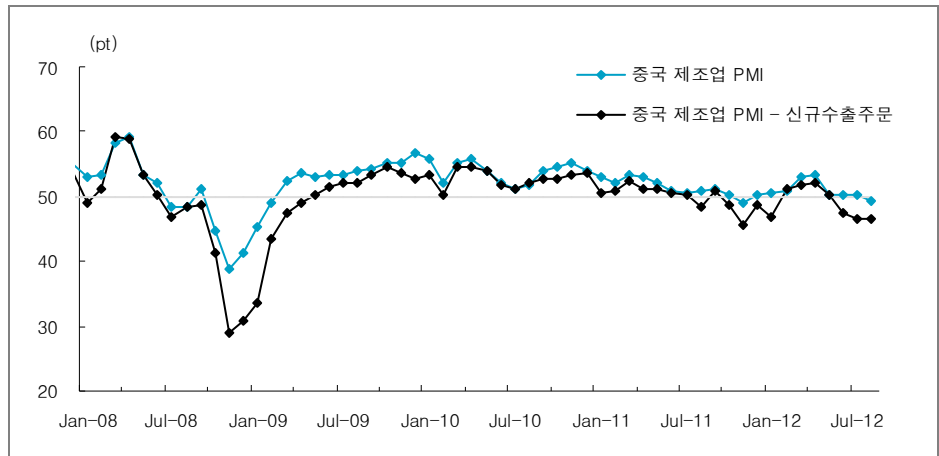
■ 중국 경기둔화와 한국 재고조정 가능성

9월 6일 ECB는 단기국채를 중심으로 국채매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 연준은 고용회복 둔화시 QE3 등 비전통적인 정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SPI의 추가상승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

정책 기대감과는 다르게 기업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는 상황이기에 KOSPI는 프로그램 매도물량에 맥없이 하락하고 있다. 순매수차익잔고는 8월 27일 4.37조원에서 8월 31일 3.78조원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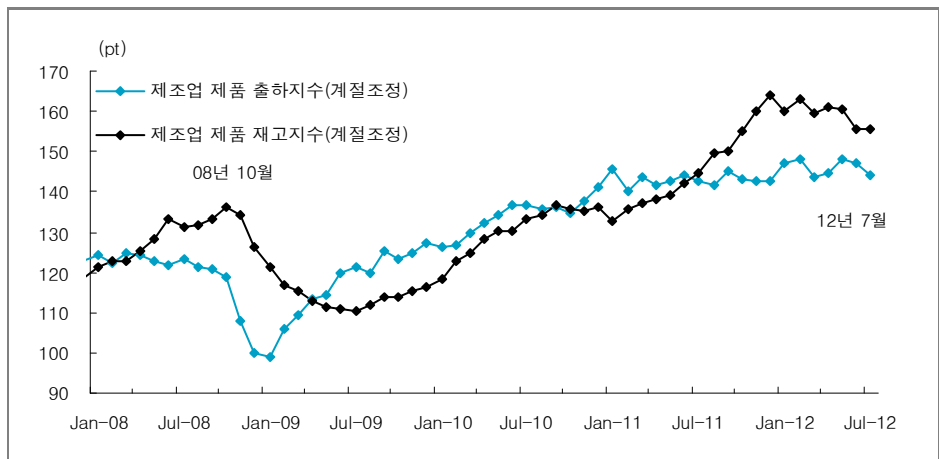
게다가 9월 2일 발표된 중국 제조업 PMI는 8월 49.2로 1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하향돌파했다. 제조업 PMI 세부부문에서 특히 원재료 재고부문이 45.1, 신규수출주문부문이 46.6으로 극히 낮다. 중국 제조업은 유럽향 가공무역 둔화로 재고조정이 불가피하다. 한국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중국 제조업에 동행하는 재고조정이 우려되고 있다.

[그림 2] 중국 제조업 PMI 8월 49.2 - 1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하향 돌파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3] 한국 제조업 제품 출하지수, 재고지수(계절조정)



자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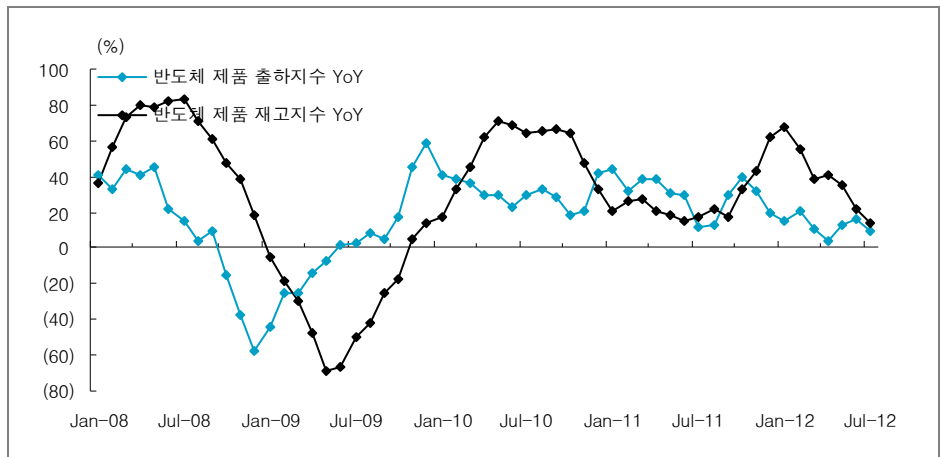
2012년
제조업 재고조정이
일부 진행되었음

중국 가공무역 둔화, 한국 재고조정, 한국기업실적 하향이 우려되다 보니 KOSPI 일반 제조기업 주가나 밸류에이션이 제한되고 있다. 재고조정과 상관없는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미디어주, 바이오주, 게임주는 각광받고 일반적인 제조업,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2012년 초부터 한국 제조업 재고조정이 일부 나타났다는 점이다. 2008년 10월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함께 제조업 제품 출하지수, 재고지수가 급락하면서 한국 경제에 쇼크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연초부터 제조업 제품 출하지수, 재고지수가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미래 경기둔화를 일부 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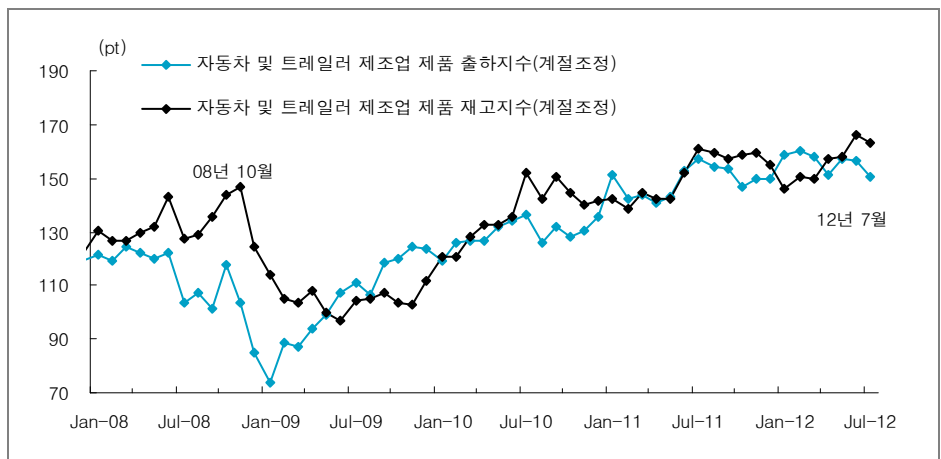
반도체, 전자부품 등 IT업종의 재고조정은 이미 가파르게 나타났다. 반도체업종은 연초대비 27%의 재고를 감축하였고 전자부품은 15% 재고를 감축하였다. 그러나 윈도우8 대기수요, PC수요 감소로 인해 델, HP 등 디램수요업체의 재고가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부정적이다. 반도체 제품 출하지수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그림 4] 반도체 제품 재고지수(계절조정) 전년비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자동차 출하지수, 재고지수(계절조정)



자료: 한국투자증권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2개월
연속 상향

자동차 업종은 의미있는 재고조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동차 업종은 따라서 재고증가로 인해 경기 둔화시 재고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7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출하지수가 -3.8% MoM, -3.9% YoY을 기록하고 있다. 8~9월에 자동차 출하지수가 의미있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업종도 일부 생산 조절을 통해 재고조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화학, 철강업종 모두 재고조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출하감소시 재고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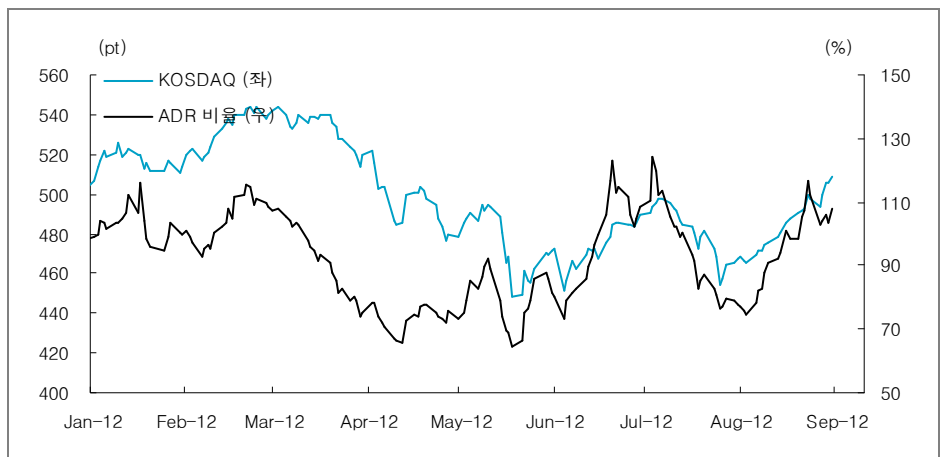
■ 재고조정 여부가 아니라 재고조정 우려가 증시를 지배하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 연속 상향되었다. 또 컨센서스에 따르면 제조업 출하지표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양호한 내수에 힘입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컨센서스대로 하반기에 경기선행지수가 반등하고 출하증가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주식투자자가 느끼는 불안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출하 감소, 재고 조정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식투자자들이 일반 제조업보다는 미디어주, 바이오주, 게임주를 선호하는 패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시가총액 상위업종 강세는 출하 감소, 재고 조정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 나올 수 있다.

엔씨소프트 등 게임주는 08년 10월말부터 먼저 강세가 나타났었고 기아차 등 대형주는 09년 3월 초가 된 이후에야 강세가 나타났었다. 재고조정이 09년 6월에서야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기아차 등 대형주 강세는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다. 결국 시가총액 상위업종, 일반 제조업의 강세가 나오려면 출하 감소, 재고 조정이라는 불확실성이 없어져야 한다.

[그림 6] KOSDAQ과 ADR 비율



자료: 한국투자증권

Appendix
- 전주 주요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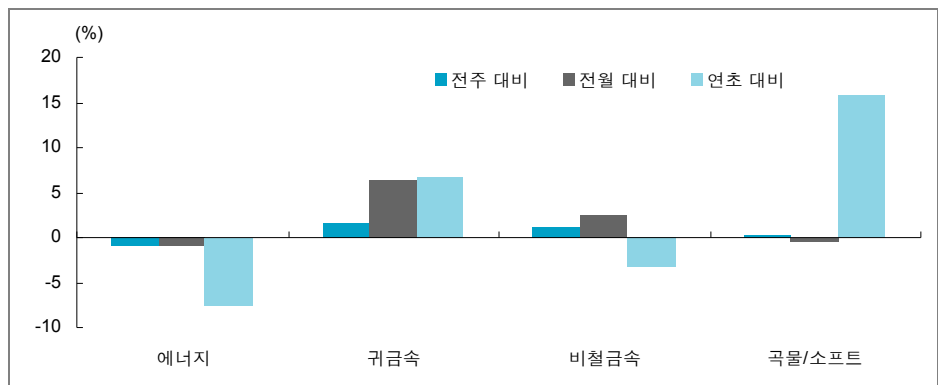
날짜	국가	내용
08/23	미국	HP, 22일 장 마감 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 8.15% 급락하며 다우지수를 하락세로 이끌어
08/23	미국	제임스 블러드 연준 총재, 경제지표가 추가 부양책을 정당화할 만큼 약하지 않음, 통화정책 기대감을 낮춤
08/23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37.2만건, 예상치 36.9만건 상회, 고용회복속도 여전히 제한되고 있음
08/23	미국	7월 신규주택 매매 37.2만건, 6월의 35.9만건 상회, 전년대비 25.3% 증가, 주택거래량 증가 뚜렷함
08/24	한국	한국 법원, 애플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과 아이패드2, 삼성전자 갤럭시 S2, 갤럭시탭 10.1 판매 중단 명령
08/24	한국	엠텍비전, 테크윙, 온지구, ADM21 등 4개사, KIKO손실에 대해 60~70%를 은행 배상 판결받음, 은행업종 약세
08/24	일본	일본정부,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독도방문, 일왕 사과요구발언에 반발해 한국 국채매입 유보할 예정
08/24	그리스	독일, 그리스 정상회담,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트로이카 실사 보고서 검토 이후 그리스 재정긴축 시한 2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
08/24	미국	버냉키 연준의장, 금융여건 완화, 경기 회복 촉진을 위해 추가적인 부양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08/24	미국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이 3차 QE를 채택해야할 이유가 많다고 발언
08/24	미국	7월 내구재주문이 4.2% MoM, 자동차와 부품 주문 12.8% MoM으로 증가세 이끌었으나 핵심내구재주문은 -0.4% MoM
08/24	미국	미국법원,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5건 고의 침해에 따른 10억 4,934만달러 대규모 손해배상 결정
08/24	미국	애플의 새로운 태블릿PC 아이패드 미니 10월 공개될 전망, 아이폰5와 함께 9월 동시 출시 가능성 낮아짐
08/27	한국	삼성전자 -7.45%, 삼성전기 -6.4%, 삼성전자 미국법원 패소로 약세, 반면 LG디스플레이 등은 반데급부로 상승
08/27	한국	Moody's, 한국 국가 신용등급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 중국·일본과 같은 등급, 채무위험 낮아짐
08/27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숫자를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해 5세대 지도부를 구성, 10월 18일 7명 인선 공개될 예정
08/27	EU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독일과 프랑스가 은행연합, 재정연합, 통화동맹 강화 등의 문제에 대한 업무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
08/27	독일	독일 Ifo 8월 기업심리지수는 102.3, 7월 103.2 하회, 2년래 최저, 불확실성 드러남
08/27	미국	달러스 연준 8월 제조업 활동지수는 8월 -1.6, 예상치 -6.5 상회, 다만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
08/27	미국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 미국 실업률이 최소 6개월 동안 하락할 때까지 양적완화를 실시해야함
08/27	미국	애플, 삼성전자 특허침해소송 패소에 따라 스마트폰 기종 8종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청
08/28	한국	한화그룹, 독일 Q-Cell 인수로 태양광 회사 3위로 도약, 29일 채권단 Q-Cell의 채권단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
08/28	중국	바오산철강, 자사주 매입계획 발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기대로 상해종합지수 0.85% 오른 2073.15로 마감
08/28	스페인	동북 지역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50억 유로 지원을 요청할 방침
08/28	미국	허리케인 아이작 영향으로 멕시코만 연안의 원유 생산량이 5개월내 최저치로 하락할 전망
08/28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8월 소비자기대지수 60.6, 7월 65.4, 예상치 66.0 하회, 불안한 소비자 심리 드러남
08/28	미국	PIMCO CEO,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QE3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을 전망
08/28	미국	케이스슬러지수 6월 0.9% MoM, 0.5% YoY, YoY기준 201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함
08/29	한국	삼성전자, IFA2012에서 차세대전력폰 갤럭시노트2, 원도우폰8 아티브S 등을 공개, 10월 출시 예정
08/29	한국	로엔, 음원 가격 인상의 최대 수혜주가 될 전망,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3년 시행에 따른 매출 성장
08/29	미국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 1.7%, 예비치 1.5% 상회, 소비지출 1.7% 증가, 건조한 소비 드러남
08/29	미국	미결주택 매매 7월 2.4% MoM, 예상치 1% 상회, 2010년 4월 후 최고치, 저렴한 주택 매물, 저금리로 주택경기 회복
08/29	미국	연준 베이지북 보고서,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 주택시장, 소매매출 개선이 제조업 약화 상쇄
08/30	한국	8월 31일 잭슨홀회의를 앞두고 미 QE3 기대 약화로 KOSPI 1.15% 하락, 반면 화장품, 미디어, 게임주 강세
08/30	한국	세계거래소연맹(WFE), 글로벌 주식거래 대금은 7월 3조8,037억 달러, 05년 7월 이후 최저치
08/30	중국	원자바오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와 협의 이후 위험이 충분히 통제된다는 조건에서 EU 국채에 계속 투자하겠다
08/30	스페인	Moody's, 스페인의 신용등급 9월 강등 시사, 스페인 은행들의 자본재구성과 EU 등 지원 여부가 중요
08/30	스페인	라호이 총리,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분명해질 때까지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결정을 미룰 예정
08/30	미국	8월 소비지출 0.4% MoM, 1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 개인소득도 0.3% 증가, 소비회복 건조함
08/30	미국	31일 버냉키 의장 잭슨홀 회의 기대치 하락과 함께 증시 거래량 감소, 증시 광망세 확산
08/31	한국	삼성카드, 2495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예정, LG유플러스, 자사주 6,687억원 소각 예정
08/31	필리핀	필리핀 동부 해안에서 31일 오후 규모 7.6의 지진 발생, 필리핀 중부, 남부도시 정전 발생
08/31	스페인	S&P,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자부적격인 BB로 하향, 등급전망도 부정적
08/31	독일	엔스 바이트만 분데스뱅크 총재, ECB 국채매입에 반대, 사임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함
08/31	미국	잭슨홀회의 버냉키의장, 높은 실업률, 현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 국채 추가매입정책 배제하지 않고 있음
08/31	미국	8월 시카고 PMI 53.0, 7월 53.7 하회, 예상치 53.2 하회, 유럽 재정위기, 재정절벽 우려가 높음

약해진 아이작 그리고 QE3 기대감

- ▶ 곡물 가격 아이작 세력 약화에 하락, 코코아 가격 공급 위축 우려에 급등
- ▶ 공급 우려 감소해 유가 상승세 주춤, 쿠싱 지역 재고 급증에 WTI 전주 대비 3% 상승
- ▶ 주요 정책회의 앞두고 큰 변화 없었던 비철금속 가격, 낡은 저가 메리트에 상승

이번 주 원자재시장을 이끈 요인은 열대성 폭풍 아이작과 경기부양정책 관련 심리였다. 에너지와 곡물 가격은 아이작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우려돼 주 초반 상승했지만, 아이작이 허리케인에서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되자 하락 반전했다. QE3 기대감에 상승하던 귀금속 가격은 미국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자 상승 폭을 일부 되돌렸고, 비철금속 가격은 미국, 유럽의 상반된 경제지표 흐름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정된 잭슨홀 회의와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이어갔다.

[그림 1] 종목별 원자재가격 변화



자료: Thomson Reuters

주: 변화율은 종목에 속하는 원자재가격 변화율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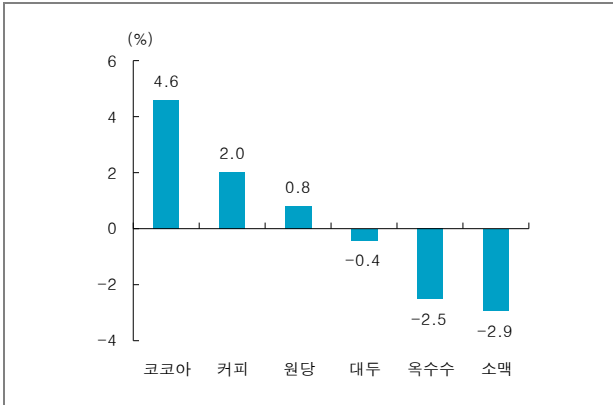
■ 곡물값 차익실현에 하락세, 코트디부아르 작황 우려에 코코아 가격 상승

최근 두 달 동안 미국 콘벨트 지역의 가뭄으로 수직 상승했던 곡물 가격이 차익실현 매물로 전주 대비 모두 하락했다. 소맥은 전주 대비 3% 가까이 하락했고, 옥수수도 2.5% 하락했다. 소맥 가격이 특히 크게 떨어진 이유는 열대성 폭풍 아이작이 소맥의 수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장 기대감 때문이었다. 대두와 옥수수의 경우,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데 폭풍으로 인해 수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맥은 이미 봄밀 수확을 마치고 겨울밀 파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아이작으로 인해 토양 습도가 높아지면 겨울밀의 작황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크다.

소프트 작물 중 전주 대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코코아였다. 코코아는 전주 대비 4.6%나 상승했는데 이는 코코아 제 1 수출국인 코트디부아르의 작황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자라고 있는 코코아에 검은 곰팡이가 번식하기 시작하면서 공급 우려가 급증했다. 원당은 다른 소프트 작물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당 주요 수입처인 유럽과 중국에서의 원당 작황이 개선됐고, 원당 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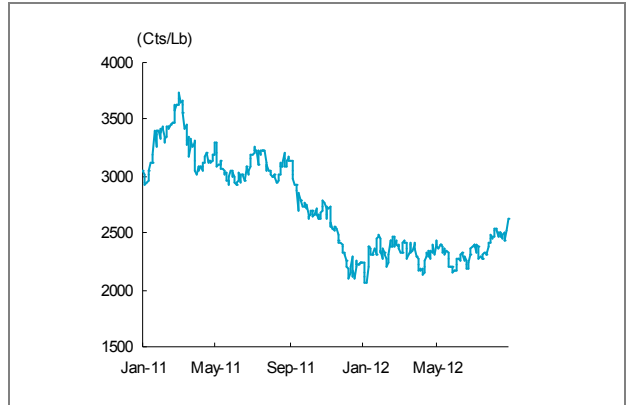
수출국인 태국이 생산 시설 증축을 위한 설비투자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공급 우려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 2] 전주 대비 곡물 가격 변화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3] 코코아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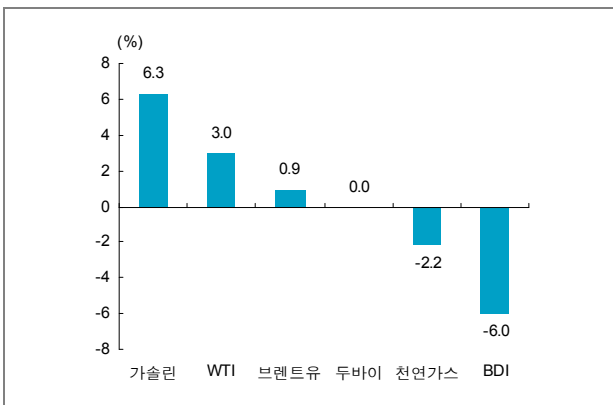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 아이작 세력 약화에 원유 및 휘발유 가격 상승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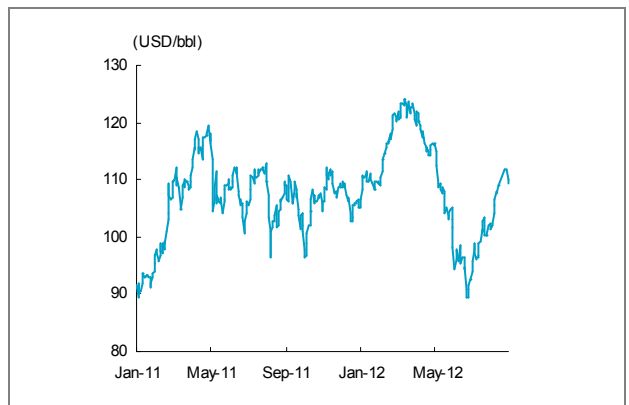
열대성 폭풍 아이작의 출현으로 원유와 휘발유 가격 모두 전주 대비 상승했다. WTI 가격은 배럴당 96달러를 넘어섰고, 가솔린 가격도 갤론당 320센트를 돌파했다. 원유보다 휘발유 가격이 더 크게 오른 것은 정유사가 아이작에 대비해 시설 가동을 중단하자 공급 우려가 고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주 주말로 넘어오면서 아이작이 허리케인에서 열대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원유와 휘발유 가격 모두 하락 반전했다. 특히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의 WTI 재고가 시장 예상을 뒤집고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금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QE3 기대감이 상당 부분 희석된 점이 WTI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그림 4] 전주 대비 에너지 가격 변화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5] WTI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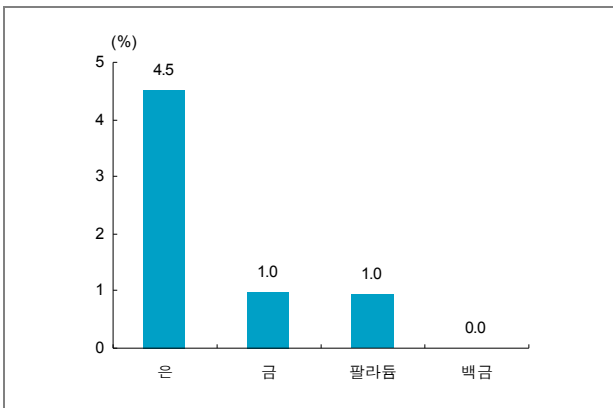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 미국 2분기 GDP 발표 후 QE3 기대감 감소해 귀금속 가격 하락 반전

양적완화 기대감에 상승하던 귀금속 가격이 미국 2분기 GDP와 주택지표 발표 후 하락 반전했다.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8월 31일(금)로 예정된 잭슨홀 회의에서 3차 양적완화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었다. 하지만 미국 2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높은 1.7%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미결주택매매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것이 QE3를 당장 시행할 것이란 기대감을 상당 부분 축소시켰다. 따라서 은을 제외한 금, 백금, 팔라듐 가격은 전주 대비 1% 미만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은 가격의 상승세는 향후 수요 증가 기대감에 따른 저가 매수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은은 자동차 촉매 변화 장치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거나 회복이 기대될 때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은 매수세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림 6] 전주 대비 귀금속 가격 변화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7] 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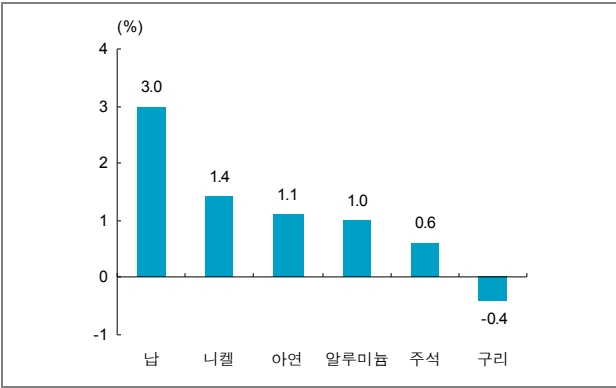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 잭슨홀 회의 및 ECB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관망세 이어진 LME 시장

경기에 민감한 비철금속 시장은 주요 정책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 경제지표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자 관망세에 머물렀다. 미국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주택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유럽에서는 스페인 카탈루냐 정부의 구제금융 신청 및 독일 IFO 지표 부진 소식이 전해졌고, 금속의 주요 수입처인 중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했다. 또한 잭슨홀 회의와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QE3와 재정위기국 국채 매입이 논의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시장 내 분분한 상황이라 납을 제외한 비철금속 가격은 전주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납 가격은 전주보다 3%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납 가격의 상승세는 그간 하락세에 대한 되돌림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올해 초 톤당 2000달러를 상회했던 납 가격은 세계 경기 위축에 180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납은 주로 산업용 배터리의 부품으로 사용된다. 납 배터리의 사용처는 지게차에서 핸드폰까지 다양해지고 있고, 전자제품의 간편화, 소형화가 진행될수록 납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본다. 매크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요즘처럼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된다면 지속적 수요와 저가 메리트가 있는 납 가격은 적어도 연초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전주 대비 비철금속 가격 변화



자료: Thomson Reuters

[그림 9] 납 가격



자료: Thomson Reuters

* 상기 보고서는 2012년 8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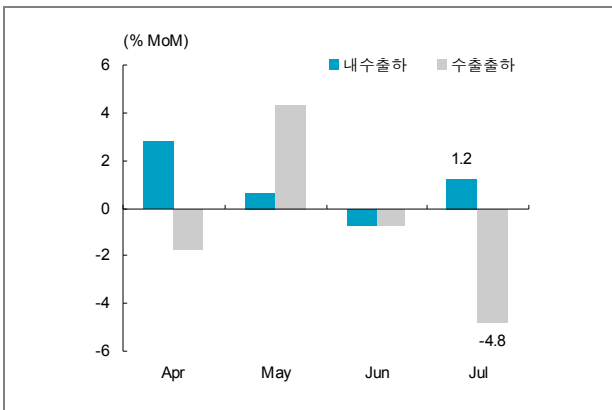
7월 산업활동: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업 호전 양극화

- ▶ 수출 부진으로 7월 생산은 예상보다 큰 폭 감소, 전기전자 및 자동차 출하 부진이 커
- ▶ 소비, 투자 등 내수는 반등, 공공부문의 발주 증가를 통한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 보임
- ▶ 수출 감소 지속으로 내수 회복도 한계가 있을 듯

■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생산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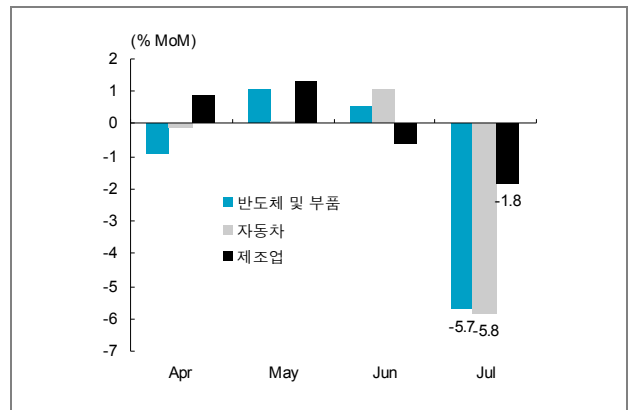
7월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1.6% 감소해 2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졌다. 컨센서스는 물론 당사 추정치보다도 감소폭이 훨씬 컸다. 광공업생산만 놓고 보면 3분기 국내 경기의 출발이 불안하다. 광공업 중에서도 제조업 생산 부진이 심화된 것은 대외 경기 악화로 수출이 큰 폭 줄었기 때문이다.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8% 감소했으며, 유럽 외에 아시아와 중남미 등에 대한 수출까지 부진이 확산됐다. 특히, 수출 감소 폭이 컸던 반도체 및 부품(전월비, -10%)과 자동차(-5.6%)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 부진이 심했다.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를 제외한 광공업생산은 오히려 전월 대비 0.8% 늘었다.

[그림 1] 제조업 내수/수출 출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그림 2]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생산



자료: 통계청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뚜렷한 양극화

첫째, 수출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과는 달리 내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서비스업은 예상보다 긍정적인 경기 흐름을 이어갔다. 수출 감소를 가져온 요인이 글로벌 경기 침체인 반면, 내수 경기는 공공 부문의 경기 부양 노력 등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공공부문의 발주 증기를 통한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 가시화

둘째,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공공 부문 발주 증가 등 정부의 경기 부양 움직임이 있었다. 공공 부문 기계 및 건설 발주가 늘어난 것이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부분이다. 이런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 민간 투자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에 차질 없도록 이행을 촉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민간 건설투자 및 수주 반등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책은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선행지수 상승세 지속, 경기 급락 우려는 안 해도 될 듯

셋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경기 반등 가능성을 남겨뒀다. 그러나 6월에 비해 상승세가 축소됐기 때문에 경기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속도는 완만할 것이다. 선행지수 상승이 제한된 것은 실물 경기 여건보다는 유럽발 재정위기 불안이 남아있는 금융시장과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 등에 영향을 받았다.

■ 향후 경기 둔화 위험은 여전히 상존

선행지수가 반등했다하더라도 경기 상승세를 확실하게 보장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요 위축이 풀리지 않고 있어, 수출 감소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수가 회복되더라도 전체 경기 반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수출 부진은 역으로 정부의 내수 부양 노력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 지원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4분기에는 국내 경기의 긍정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산업활동동향의 주요 지표

	Feb-12	Mar-12	Apr-12	May-12	Jun-12	Jul-12	
동행 지표	산업생산 (% MoM)	0.7	-2.9	0.9	1.3	-0.6	-1.6
	서비스업생산 (% MoM)	1.3	-0.8	-0.1	0.5	-0.2	0.7
	소매판매 (% MoM)	2.5	-2.6	0.9	0.7	-0.5	3.4
	설비투자 (% MoM)	-3.5	-7.0	4.7	-0.3	-5.9	2.5
	건설기성 (% MoM)	-0.1	2.5	-4.1	1.5	-3.0	5.7
	경기동행지수 (% MoM)	0.8	0.1	0.2	-0.1	0.4	0.6
선행 지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0	99.6	99.4	98.9	98.9	99.1
	국내기계수주 (% MoM)	14.1	-32.8	21.5	-3.7	-18.5	20.2
	국내건설수주 (% MoM)	32.2	-40.6	-5.4	0.7	29.5	-14.1
	경기선행지수 (% MoM)	1.0	0.4	0.4	0.1	1.0	0.6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9	99.8	99.8	99.5	100.0	100.2

자료: 통계청

* 상기 보고서는 2012년 8월 3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대형사 실적 부진, 중화권 증시 약세 연장

- ▶ 중국, 상반기 상장사(은행 제외) 매출액 8.18% 증가에 그쳐, 이익증가율 -2.18%
- ▶ 홍콩, 중국컨테이너그룹 B주 H주 전환 방안 주총에서 99% 높은 득표율로 통과 - 상해증권보
- ▶ 홍콩정부, 부동산 규제 10조치 발표, 구매제한 불포함

상해지수 소폭 내려
금융, 항공, 석탄 등 하락
광업, 여행, IT관련주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소폭 하락해 사흘 연속 약세로 마감했다. 보합권 내 혼조세를 지속했고 마감 직전 상승폭을 키웠으나 반락했다. 거래금액은 353억위안으로 크게 축소됐다. 부동산규제 우려와 통화완화 기대 약화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실적발표 종료일에 집중된 주요 대형주의 부진한 실적발표가 지수의 추가 하락 요인이 됐다. 중신증권과 삼일중공업은 상반기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큰 폭 하락했고 공상은행도 이익 증가세 둔화로 약세였다. 하반기에도 기업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강해졌다. 반면 칭다오하이얼은 양호한 실적발표에 힘입어 급등세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SOC(-0.6%), 증권(-0.6%), 은행(-0.5%), 항공(-0.4%), 석탄(-0.2%) 등이 하락했다. 반면 직전일 약세를 나타냈던 광업(+3.0%), 여행(+1.6%), IT소프트웨어(+1.1%), 정유(+1.0%), 부동산개발(+0.8%), 음식료(+0.8%), 미디어(+0.8%), 화학(+0.6%), 해운(+0.6%), 기계(+0.6%), 건설(+0.6%), 전자(+0.5%) 등은 강세로 전환했다.

■ 홍콩 시장

홍콩 H지수는 6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중국 부동산 규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잭스홀 연설을 앞두고 QE3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홍콩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책에 구매제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으로 추가 하락폭은 제한했다. 공상은행의 상반기 이익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부실대출 비율이 하락해 본토은행 부실화 우려가 일부 희석됐다. 업종별로는 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등의 실적 부진이 확인된 가운데 최근 중도 회항 사건으로 항공주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그 외 해운, 자동차, 정유주도 약세를 주도했다. 반면 직전 거래일 급락했던 보험주가 반등했고 유틸리티, 음식료주도 강세를 보였다. 본토 은행주는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H지수 6거래일 연속 하락
운송, 자동차, 정유주 약세
유틸리티 및 음식료주 상승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8/31(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047.52	-0.25	-2.13	-2.67	-6.91
홍콩 H	9,280.25	-0.65	-4.08	-4.07	-6.60
인도 SENSEX	17,390.75	-0.86	-2.21	0.90	12.53
러시아 RTS	1,391.99	0.56	-3.12	1.06	0.73
브라질 보베스파	57,256.43	-0.20	-2.15	2.07	0.89
베트남 VN	396.02	-0.31	-0.93	-4.45	12.65
MSCI 이머징마켓	944.39	-0.89	-2.18	-0.85	3.06

주: 31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

- 잭슨홀 연설을 하루 앞두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악화되며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는 나흘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매도세로 16거래일 만에 장초반 1,900선 붕괴.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와 더불어 장 후반 연기금의 매수폭이 확대되며 지수하락을 방어, 1,900선을 유지하는 약보합으로 마감.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하락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의료정밀, 섬유 의복, 전기전자, 보험 업종 등이 오름세를 보인 반면 운수장비, 운수창고, 음식료 등은 내림세를 나타냄.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1%대의 상승을 보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임. POSCO, LG화학 등이 선방한 반면 현대차, KB금융 등은 2% 이상 하락. 전일 금융위가 '실손의료보험개선안'을 발표하며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부각되며 AMOLED 관련 장비주가 상승함.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의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관련 수혜 업종들도 선별적 강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용
한섬(020000) ▶27,850(+6.50%)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펀더멘탈과 소비 개선 기대감이 부각되며 의류 업종지수가 최근 1개월간 시장 대비 6.7%p 초과 상승한 가운데 동사도 상승행렬에 동참하는 모습 - 브랜드 이미지, 효율적 재고관리 등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고점 대비 40% 하락한 주가의 가격 메리트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
휴온스(084110) ▶13,800(+5.75%)	국산 1호 조루치료제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국내 최초 출시를 목표로 씨티씨바이오와 함께 개발해온 경구용 조루치료제 '프리라민정'의 품목허가 신청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하반기 출시가 기대되는 가운데 경쟁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며 판매 호조 기대. 신약 개발 및 해외 진출 기대감으로 최근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강세
보험주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이 발표에 힘입어 강세 -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손해를 안정화 등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강세 - 동부화재(005830, +6.06%), 롯데손해보험(000400, +3.49%), LIG손해보험(002550, +3.16%), 삼성화재(000810, +2.86%), 현대해상(001450, +2.67%) 등 강세
AMOLED 관련주	3분기 턴어라운드 전망에 강세 - 상반기 실적 부진은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된 가운데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부각되며 강세 - 원익(030530, +7.66%), 비아트론(141000, +6.52%), 엘디티(096870, +4.72%), AP시스템(054620, +4.46%), 에스에프에이(056190, +4.24%)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베이직하우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베이직하우스 (084870)	14,650 (+6.9)	13,700 (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이후 중국시장에서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에 따른 성장통으로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매출 정성화와 함께 판매비 부담 완화 추세.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세 지속 전망 - 중국 의류시장의 잠재력, 발 빠른 시장 진출과 다수의 성장 브랜드 보유, 중국 내 백화점 및 쇼핑몰 침투율(10% 내외)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성장 여력은 충분. 여타 중국 소비 관련주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태광 (023160)	28,500 (+2.3)	27,850 (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플랜트용 피팅 발주 본격화로 5월 261억원, 6월 305억원, 7월 310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주 흐름 지속. 조선사들이 수주한 대규모의 해양플랜트 물량을 감안할 때 피팅 호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높은 수주잔고, 고부가가치제품 판매 확대, 설비증설 효과 등을 바탕으로 외형 및 수익성 개선세 지속 예상
KG이니시스 (035600)	9,350 (+23.5)	7,570 (8/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PG(온라인 지불결제)산업의 MS 1위 업체로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쇼핑 거래의 증가로 실적 성장세 지속 예상 -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소셜커머스 간편 결제, 대리운전 시장 진출 등의 신사업 및 사업 영역 확대 기대 - 높은 성장세와 1위 업체로서의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리레이팅 가능성 상존
수산중공업 (017550)	1,700 (-8.6)	1,860 (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압브레이커 및 트럭크레인 등 주력제품의 판매량 증가 및 해외 수주 확대 지속으로 수익성 향상 예상 - 글로벌 판매처 다각화 및 우수한 딜러 확보, 유압브레이커 Capa 증설 및 소사장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전망 -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LS (006260)	87,800 (+2.5)	85,700 (7/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로 2분기 실적 호조 예상 - LS전선의 경우 중동지역 전력투자 확대, LTE투자 확대, 전력선 교체투자 증가 등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LS산전은 전력시스템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또한 LS엠트론은 2012년 중국 트랙터 시장 본격 진출에 이어 2013년에는 브라질 시장에도 진출해 성장세를 이어 나갈 전망
액트 (131400)	3,945 (+18.3)	3,335 (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처 다변화, 아마존 킨들 파이어2 출시 등에 따른 수주물량이 증가로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턴어라운드 예상 - 2012년도 예상 ROE가 25.6%임에도 현재 주가는 2012년 예상 실적기준 PER 4배, PBR 1배 수준으로 저평가 매력 부각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액트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다음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다음 (035720)	113,300 (+5.9)	107,000 (8/21)	467	106	91	6,788	16.7
- 검색광고 매출은 부진하지만, 내년부터 대형 계약 변경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부터 제주도로 본사 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 예상 -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성과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 출시 및 로컬광고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 유효							
현대차 (005380)	240,500 (+0.2)	240,000 (6/12)	86,337	9,328	8,777	41,331	5.8
- 해외 및 국내 공장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 효과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세와 함께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개선세 지속 전망 - 브랜드 가치 제고와 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은 품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세를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SK텔레콤 (017670)	145,500 (+16.9)	124,500 (5/24)	16,744	2,013	1,502	21,549	6.8
- SK플래닛, SK브로드밴드, SK하이닉스 등의 수익 개선으로 자회사 가치 상승 예상 -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LTE 경쟁 완화로 하반기 수익성 개선 전망 - 역대 최고 수준인 배당 매력도의 역사적 최저 수준인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주목할 필요							
일진디스플레이 (020760)	17,300 (+56.6)	11,050 (5/24)	521	59	56	1,801	9.6
- 중대형 터치스크린패널 부문에서의 원가 경쟁력과 안정적인 수출 확보로 고객사내 점유율 확대 지속 - 금년 1분기 매출액은 1,180억원(YoY +149%), 영업이익은 130억원(YoY +141%)으로 급증세 시현. 모바일 기기 시장의 급성장세와 고객사의 태블릿 신모델 출시 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실적 개선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세코닉스 (053450)	12,100 (-1.6)	12,300 (5/10)	130	18	14	2,025	6.0
- 증설효과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부문에 큰 폭의 이익 성장 예상. 또한 차량용 카메라 탑재수 증가세(기존 1개에서 7~8개로 증가)와 블랙박스용 수요 증가세로 차량용 카메라 렌즈 부문의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2분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점, 여타 휴대폰 부품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는 점 등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코텍 (052330)	11,600 (+7.4)	10,800 (5/03)	183	23	20	1,530	7.6
- 카지노 시장 회복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매출처 다변화에 성공. 세계 1위 업체인 Smart(세계 시장점유율 47%)에 LCD 전자칠판 독점 납품. 올해 전자칠판 매출 215억원(+75% YoY) 예상 - 작년에 법인세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순이익은 정체되나, 안정적인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추천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텔레콤, 현대차, 다음을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3분기 패키지수요는 부진, 테스트 업황은 비교적 견고

■ 반도체패키지업체들의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점점 낮아지는 중

3분기 반도체패키지업체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7월에 이어 8월에도 기대했던 가동률 상승이 나타나지 않아 대표적인 외주업체들(시그네틱스, STS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의 3분기 매출 전망치가 보수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추세기 때문이다(그림3). 우리는 패키지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가 1) 전방산업(TV, PC 등)의 수요 부진, 2) 이에 따른 반도체업체들(삼성전자 등)의 외주 주문량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본다. 9월경부터 고객사들의 restocking 수요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가시성이 낮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 주가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 반도체테스트 실적은 비교적 견고한 편

반도체패키지전문업체들의 3분기 실적 우려가 높아지는 한편, 반도체테스트의 외주수요는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최대 반도체테스트업체인 아이테스트는 3분기에 매출 270억원(전분기 대비 5% 증가) 수준의 업황 대비 견조한 매출이 예상된다. 이는 1) 하이닉스의 전략적 파트너인 동사의 메모리테스트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2)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mix개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사의 올해 상반기 비메모리테스트 매출 비중은 40%로 전년도(31%) 대비 상승하였고, 절대매출액(200억원)도 전년도 매출(319억원)의 63% 수준을 상반기에 이미 달성하였다.

■ 반도체테스트의 외주 확대추세는 계속될 전망

반도체테스트 외주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7%의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Gartner에 따르면 올해에도 글로벌 반도체테스트 외주시장(63억달러 전망)은 전년 대비 7% 성장하고, 외주비중은 56%로 2%p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동사는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의 유일한 국내 패키지테스트 외주업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LSI 캐파(capacity)증설의 수혜가 예상된다. 국내에 매출 1,000억원 이상의 규모의 경제를 갖춘 테스트업체가 2곳에 불과(표 3)한 것도 동사의 향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 반도체패키지보다 테스트업종 선호

아이테스트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 2012F PER 10.5배, 2013F PER 5.4배에 거래 중이다(2012F 및 2013F EPS 성장률은 각각 8%, 93%). 1) 중장기적으로 반도체테스트의 외주확대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2)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3) 고정비용이 높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BEP(월 매출 75억원으로 추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가파른 이익률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반도체패키지업종(시그네틱스, STS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은 최근의 주가 하락세(3개월간 8~29%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 모멘텀의 부재로 당분간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8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휴대폰 업종: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의 향후 쟁점 5가지

■ 쟁점1. 애플이 갤럭시S3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이번 배심원판결 결과에 따라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한 제품 목록에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이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애플이 조만간 이번 1심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들 이외에 추가적 특허들(예를 들어 지난 2월에 갤럭시넥서스와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애플이 특허 침해를 주장했던 데이터 태핑, 음성인식, 밀어 잠금 해제, 문자입력 과정에서 올바른 단어제시 기능 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특허들을 갤럭시S3 등이 침해했다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동시에 애플은 갤럭시S3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 시기적으로 9월 20일의 1심 판사판결 이전에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다른 소송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1) 갤럭시S3가 디자인 특허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이에 따라 갤럭시S3의 판매금지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특허들이 필요하다고 애플이 판단하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 쟁점2. 보유하고 있는 LTE 기술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배심원판결보다 유리한 향후의 판결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이번 미국 배심원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주장한 5개 특허 중에서 2개가 이동통신기술에 해당한다(패킷 데이터 전송기술, 전력제어 전송기술).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의 2개 특허가 표준특허에 해당하고 FRAND 조항을 위배하지 않았지만, 애플이 인텔(인텔과 삼성은 3G 기술에 관한 크로스라이센싱이 이미 체결되었음)이 제조한(엄밀하게는 인텔의 자회사인 IMC가 제조한) 베이스밴드칩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특허 소진’이 되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2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국내 법원에서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나타난 2개 특허(자율 전송, 헤더 압축)도 IMC가 인텔로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인텔이 삼성에게 특허사용료를 정확하게 지불하였는가의 절차상 문제가 침해의 사유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애플이 LTE칩 제조업체에게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고 베이스밴드칩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추가로 LTE관련 통신기술을 특허로 주장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일 전망이다.

■ 쟁점3. 배심원판결에서 결정한 애플의 피해금액은 후속 소송에서 적어질 것인가?

27일(현지시간)에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한 제품 8개의 미국내 누적 판매대수와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금액을 가지고 추정한 해당 8개 제품의 대당 평균 피해금액은 \$52 수준이다. 해당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의 15% 수준으로 추정된다. 1) 퀄컴이 보유한 LTE의 특허사용료가 대당 4% 수준이고, 2)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Windows Phone OS에 대한 특허사용료가 대당 \$15 수준이며, 3) Android OS를 사용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지불하는 특허사용료가 대당 \$5 수준이다. 또한 4) Oracle이 Java에 대한 특허사용료로 구글에 요구하는 것이 대당 \$10 수준임을 감안하고, 5)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가 디자인과 UI에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면 배심원판결의 피해금액은 과도한 수준임이 분명하다. 이번 1심 심리기간 중에 애플이 합의의 대가로 2010년 5월에 삼성전자에 요구했던 특허사용료가 대당 \$24였다는 증언을 감안하면 후속 소송에서 결정될 특허사용료는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8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삼성전자(005930)

매수(유지)
목표가: 1,700,000원(유지)
총가(8/30): 1,215,000원

애플 소송 판결 충격을 딛고 일어나 장기전을 준비

■ 휴대폰 및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 하향

애플 소송 판결에 따른 스마트폰 실적 및 DRAM 가격의 하락을 반영하여 2012년과 2013년의 실적 전망을 하향한다. 3Q OP 7.25조원, 4Q OP 5.64조원(애플 소송 배상금 1.16조원 반영)으로 낮추고, 2012년 OP 25.5조원, 2013년 OP 30.4조원으로 하향한다. 하지만, 부품 사업의 실적 개선 등을 반영하여 SOTP Valuation을 적용한 목표주가 170만원을 유지한다.

■ 애플 소송의 배심원 판결 이후에도 장기간 소송 진행 예상

판결 이후 애플이 갤럭시S2를 중심으로 8개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하여 9월 20일 심리를 예상하였으나, 심리가 12월 6일로 연기됐다. 우리는 판사의 최종 판결이 배심원 판결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다. 배심원의 판결이 삼성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충격이었던 만큼, 향후 소송 진행을 통해서 서서히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향후 미국 내 항소심, 갤럭시S3 등에 대한 소송 등을 감안한다면 전세계에서 수년간에 걸친 장기전으로 접어들 것이다.

■ 배심원 판결 이후 부각된 리스크 요인들

배심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대두됐다. 1) 삼성전자의 주력폰에 대한 소송 및 판매금지 가처분, 2) 브랜드 이미지 손상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감소 및 마케팅 비용 증가, 3)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의 소송, 4) 안드로이드 O/S의 특허 취약점 등이다.

■ 리스크 요인을 반영하여 스마트폰의 2013년 매출 4%, 영업이익 6% 하향

배심원 판결 이후, 스마트폰의 판매 수량 감소, ASP 하락, 비용 증가 등을 가정하여 2013년 매출 78.5조원(이전 전망 82조원), 영업이익 16.7조원(이전 전망 17.7조원)으로 하향한다. 미국 내 갤럭시 S2, S1의 판매 금지(연간 32만대), 브랜드 이미지 손상에 따른 판매 감소, 마케팅 비용 증가, ASP 하락, 애플항 잠재적인 로열티 가능성 등도 반영했다. Worst Case로는 2013년 스마트폰 매출 73.5조원, 영업이익 15.2조원으로 본다.

■ DRAM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실적도 추가적으로 하향

PC 수요 부진에 따른 PC업체들의 높은 DRAM 및 DRAM업체들의 원가절감을 위한 공격적인 미세가공전환에 따라 하반기 DRAM 가격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NAND 수급의 개선 및 System LSI Capa 확대에도 반도체 3Q OP를 1.26조원(이전 전망 1.48조원)으로 하향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54,630	17,297	19,329	15,799	105,992	63.1	28,690	9.0	4.8	1.7	20.4
2011A	165,002	16,250	17,159	13,359	89,073	(16.0)	29,842	11.9	5.2	1.7	14.6
2012F	198,121	25,457	27,415	21,056	139,755	56.9	43,853	8.7	4.0	1.7	19.6
2013F	217,298	30,370	32,958	25,660	170,134	21.7	51,138	7.1	3.2	1.4	19.8
2014F	230,008	32,781	35,230	27,407	181,717	6.8	50,377	6.7	3.0	1.2	17.8

*상기 보고서는 2012년 8월 3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유주형 (jhyoo@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8/24(금)	08/27(월)	08/28(화)	08/29(수)	08/30(목)	08/31(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19.81	1,917.87	1,916.33	1,928.54	1,906.38	1,905.12	
	등락폭	-22.73	-1.94	-1.54	12.21	-22.16	-1.26	
	등락종목	상승(상한)	279(7)	433(6)	394(9)	477(9)	290(6)	423(8)
		하락(하한)	544(1)	383(1)	410(1)	343(0)	529(3)	393(0)
	ADR	120.61	114.67	113.63	111.13	107.18	108.94	
	이격도	10 일	98.82	98.87	98.87	99.64	98.76	98.91
		20 일	100.52	100.19	99.92	100.43	99.21	99.05
	투자심리	40	30	30	30	20	20	
	거래량 (백만 주)	616	564	601	579	715	639	
거래대금 (십억 원)	4,279	5,962	4,358	4,767	4,847	4,394		
코스닥	코스닥지수	497.51	493.83	499.53	505.32	505.64	508.35	
	등락폭	-1.83	-3.68	5.70	5.79	0.32	2.71	
	등락종목	상승(상한)	374(7)	324(17)	559(15)	616(26)	377(14)	585(11)
		하락(하한)	572(2)	621(11)	366(3)	313(3)	563(3)	348(1)
	ADR	112.30	102.77	104.18	105.66	103.42	108.05	
	이격도	10 일	101.97	100.84	101.57	102.23	101.88	101.99
		20 일	104.04	102.96	103.78	104.57	104.24	104.35
	투자심리	90	80	80	80	80	80	
	거래량 (백만 주)	641	678	672	683	752	679	
거래대금 (십억 원)	2,317	2,262	2,457	2,624	2,644	2,36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350.8	945.6	1,090.7	140.4	120.9	293.1	79.9	32.7	307.6	43.6
	매도	2,209.0	994.5	1,185.9	147.2	200.5	278.3	80.5	39.9	202.7	41.4
	순매수	141.9	-48.9	-95.2	-6.8	-79.6	14.8	-0.6	-7.2	104.9	2.2
	08 월 누계	-4,702.7	4,999.4	-124.6	712.5	246.4	-1,723.0	-224.5	-46.1	984.5	-172.1
	12 년 누계	-10,246.4	11,638.4	2,327.4	1,641.0	2,313.3	-3,154.2	-1.0	416.7	581.8	-3,719.4
코스닥	매수	2,202.3	77.0	92.1	11.6	15.4	26.4	5.0	4.2	26.4	16.8
	매도	2,208.4	71.3	88.6	8.5	15.7	34.5	5.1	2.7	19.4	19.8
	순매수	-6.1	5.7	3.5	3.1	-0.3	-8.1	-0.2	1.6	7.0	-3.1
	08 월 누계	-102.1	39.8	130.5	0.8	15.5	-18.8	-20.4	14.4	112.8	-68.2
	12 년 누계	957.7	-87.4	-330.9	46.3	56.0	-453.9	-50.9	-42.8	103.9	-539.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31,021	화학	-16,862
운수창고	4,919	금융업	-10,855
음식료품	4,839	기계	-8,372
삼성전자	26,132	기아차	-13,102
현대모비스	7,432	호남석유	-8,794
삼성SDI	6,465	KB금융	-8,407
NHN	5,851	신한지주	-6,919
만도	5,297	대우조선해양	-6,782

연 기 금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29,536	금융업	-4,669
전기,전자	24,371	증권	-2,778
서비스업	19,159	은행	-456
현대차	22,260	OCI	-8,235
LG전자	11,008	SK이노베이션	-6,537
삼성전자	10,304	LG디스플레이	-3,531
삼성엔지니어링	9,931	넥센타이어	-3,309
SK텔레콤	6,666	우리금융	-3,156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616	운수장비	-3,609
서비스업	1,117	통신업	-1,152
기계	385	유통업	-1,137
삼성전자	1,755	SK텔레콤	-1,566
엔씨소프트	1,563	KODEX 인버스	-1,424
제일모직	848	대한항공	-1,062
POSCO	748	OCI	-1,014
제일기획	622	현대모비스	-960

보 험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창고	5,660	운수장비	-19,536
섬유,의복	1,215	철강및금속	-11,453
통신업	579	서비스업	-11,444
KODEX 레버리지	13,667	현대차	-12,210
KODEX 200	4,624	현대제철	-7,709
LG화학	3,948	삼성전자	-5,595
현대글로벌비스	3,729	아모레G	-4,896
TIGER 200	3,425	OCI	-4,669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9,992	금융업	-31,965
운수창고	9,471	화학	-22,994
섬유,의복	5,596	철강및금속	-22,279
제일모직	21,191	기아차	-28,835
현대위아	13,373	OCI	-17,299
LG전자	13,249	아모레G	-16,716
엔씨소프트	12,019	신한지주	-15,490
현대차	11,973	POSCO	-12,312
KODEX 레버리지	9,691	현대중공업	-11,032
만도	8,283	KODEX 인버스	-9,891
LG유플러스	8,099	현대제철	-9,584
삼성엔지니어링	6,831	SK이노베이션	-8,768
삼성SDI	5,938	KB금융	-8,675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18,482	운수장비	-44,950
보험	15,134	전기,전자	-27,364
금융업	11,164	운수창고	-13,751
아모레G	18,147	삼성전자	-23,684
삼성전자우	11,316	현대차	-18,920
POSCO	10,772	기아차	-16,768
현대모비스	8,790	엔씨소프트	-13,247
하나금융지주	6,523	삼성SDI	-9,226
LG디스플레이	6,471	OCI	-8,187
한국전력	5,758	호남석유	-8,105
GKL	5,553	STX팬오션	-7,319
LG화학	5,534	LG유플러스	-7,245
KT	5,400	현대미포조선	-7,11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 장비	1,948	디지털컨텐츠	-4,559
출판, 매체 복제	1,453	오락, 문화	-2,323
사업지원	966	제약	-1,825
하나투어	1,012	파라다이스	-2,414
옵트론텍	981	컴투스	-2,323
에스엠	910	인터플렉스	-2,308
에이블씨엔씨	908	위메이드	-1,644
CJ오쇼핑	741	JCE	-1,555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2,982	인터넷	-1,136
사업지원	1,752	반도체	-1,070
기계, 장비	1,698	소프트웨어	-522
위메이드	1,852	서울반도체	-1,952
에스에프에이	1,518	다음	-1,136
하나투어	1,424	한글과컴퓨터	-650
CJ오쇼핑	1,272	에스엠	-566
게임빌	1,252	CJ E&M	-44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사업지원	524	화학	-322
기계, 장비	484	의료, 정밀기기	-102
디지털컨텐츠	420	연구, 개발	-88
JCE	718	에이블씨엔씨	-315
툽텍	435	이녹스	-208
모두투어	332	서울반도체	-208
파라다이스	262	네오위즈인터넷	-137
하나투어	192	하이록코리아	-133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금속	2,711	반도체	-2,732
출판, 매체 복제	1,795	오락, 문화	-1,698
사업지원	1,691	디지털컨텐츠	-949
성광벤드	2,396	서울반도체	-2,192
하나투어	1,457	파라다이스	-1,642
CJ오쇼핑	1,438	CJ E&M	-863
로엔	955	메디투스	-765
에스엠	840	컴투스	-675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사업지원	5,199	반도체	-5,189
기계, 장비	4,932	디지털컨텐츠	-3,094
방송서비스	4,180	제약	-2,986
하나투어	4,127	서울반도체	-5,155
CJ오쇼핑	4,046	컴투스	-4,411
성광벤드	3,554	파라다이스	-2,992
다음	2,900	스틸플라워	-2,085
옵트론텍	1,696	인터플렉스	-1,885
에스엠	1,611	메디투스	-1,840
로엔	1,563	씨젠	-1,374
에스에프에이	1,479	유비벨록스	-1,326
솔브레인	1,151	JCE	-897
메가스터디	1,097	인프라웨어	-691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5,051	방송서비스	-3,134
디지털컨텐츠	4,022	교육	-2,570
화학	2,949	제약	-2,424
컴투스	7,904	CJ오쇼핑	-3,072
다음	4,899	게임빌	-2,794
바이오랜드	1,940	셀트리온	-2,697
파라다이스	1,488	메가스터디	-2,419
루멘스	1,374	로엔	-1,307
파트론	1,222	MDS테크	-1,079
원익IPS	875	위메이드	-1,054
AP시스템	785	서울반도체	-1,054
SBS콘텐츠허브	642	태광	-1,033
안랩	632	오스템임플란트	-85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NHN	15 일	종근당	29 일
현대백화점	14 일	대한생명	21 일
KODEX 에너지화학	13 일	한국셀석유	17 일
한화	12 일	우리투자증권	16 일
오리온	12 일	한국전력	16 일
베이직하우스	11 일	대웅제약	13 일
CJ	10 일	LG디스플레이	9 일
유한양행	9 일	제일모직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57 일	하이룩코리아	10 일
아트라스BX	19 일	다음	6 일
하나투어	9 일	젠타	6 일
에이테크솔루션	9 일	원익IPS	3 일
테크노세미켐	8 일	코미팜	3 일
에스에프에이	6 일	KH바텍	3 일
메가스터디	6 일	에이블씨앤씨	3 일
모두투어	6 일	동서	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LG전자	173,148	삼성전자	144,039
제일모직	95,632	S-Oil	41,632
현대위아	90,528	KT	39,494
KODEX 인버스	80,245	LG디스플레이	35,870
현대글로벌비스	79,822	SK이노베이션	34,172
엔씨소프트	51,580	현대위아	33,631
NHN	49,842	고려아연	24,865
현대차	36,142	POSCO	23,646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오쇼핑	14,357	다음	18,110
덕산하이메탈	11,613	컴투스	12,863
에스엠	9,873	셀트리온	5,751
게임빌	8,922	인터플렉스	5,487
하나투어	8,184	에이블씨앤씨	5,337
이엘케이	6,666	파트론	4,755
다음	6,379	성광벤드	2,742
로엔	5,975	태광	2,566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서비스업	2,443	3,723	6,166
음식료품	1,624	348	1,972
-	-	-	-
제일모직	21,191	1,143	22,334
현대위아	13,373	4,802	18,175
KT	6	5,400	5,406
한전기술	4,536	776	5,312
동부화재	157	4,128	4,285
대한항공	2,956	955	3,911
호텔신라	2,677	504	3,181
후성	2,223	534	2,757
삼성테크윈	773	1,774	2,547
대우건설	2,117	182	2,300

KOSDAQ			
종	목	기	관
인터넷	2,852	5,051	7,903
기계,장비	4,932	442	5,374
화학	831	2,949	3,780
다음	2,900	4,899	7,800
옵트론텍	1,696	223	1,919
에스에프에이	1,479	213	1,692
루멘스	76	1,374	1,449
모두투어	1,042	216	1,259
신택	1,011	31	1,041
마크로젠	553	198	751
EMLSI	117	608	725
액토즈소프트	611	66	677
안랩	6	632	63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TIGER 국채3	35 일	NHN	15 일
한일시멘트	20 일	STX엔진	10 일
대한제분	19 일	락앤락	10 일
S-Oil	16 일	유한양행	9 일
에스원	16 일	에스엘	8 일
대덕전자	15 일	GS	8 일
삼양사	14 일	동아타이어	7 일
KOSEF 국고채	14 일	현대미포조선	7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서울반도체	16 일	메가스터디	26 일
주성엔지니어링	4 일	신화인터텍	11 일
미래나노텍	4 일	웹젠	9 일
동국산업	3 일	아트라스BX	8 일
동진세미켄	3 일	오성엘에스티	8 일
다산네트웍스	3 일	테크노세미켄	7 일
KH바텍	3 일	에스엠	7 일
메디포스트	3 일	크루셜텍	7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355,419	LG전자	-94,014
SK하이닉스	-86,906	NHN	-63,470
삼성전기	-77,896	엔씨소프트	-41,202
KODEX 레버리지	-68,244	호남석유	-34,192
현대중공업	-66,242	SK하이닉스	-31,815
기아차	-56,033	LG화학	-29,883
LG화학	-52,329	한국타이어	-28,121
S-Oil	-39,979	현대글로벌비스	-26,770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서울반도체	-13,917	게임빌	-9,320
컴투스	-10,088	CJ오쇼핑	-7,309
와이지-원	-5,858	에스엠	-7,076
JCE	-4,181	오스팀임플란트	-5,833
실리콘웍스	-4,117	메가스터디	-5,506
OCI머티리얼즈	-4,055	크루셜텍	-5,000
인프라웨어	-3,990	로엔	-3,197
에이블씨엔씨	-3,821	덕산하이메탈	-2,854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9,627	-44,950	-54,577
전기,전자	-409	-27,364	-27,772
화학	-22,994	-1,487	-24,480
기아차	-28,835	-16,768	-45,603
삼성전자	-2,550	-23,684	-26,234
OCI	-17,299	-8,187	-25,485
호남석유	-8,132	-8,105	-16,236
현대중공업	-11,032	-2,524	-13,556
대우조선해양	-6,131	-6,930	-13,061
KB금융	-8,675	-2,965	-11,639
SK하이닉스	-5,671	-4,223	-9,893
삼성물산	-3,836	-6,011	-9,847
두산인프라코어	-4,395	-2,728	-7,123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2,986	-2,424	-5,410
소프트웨어	-2,287	-926	-3,213
전문기술	-579	-281	-860
서울반도체	-5,155	-1,054	-6,210
인터플렉스	-1,885	-306	-2,191
메디톡스	-1,840	-72	-1,912
유비벨록스	-1,326	-410	-1,736
씨젠	-1,374	-65	-1,440
오스팀임플란트	-388	-858	-1,246
태광	-61	-1,033	-1,094
태웅	-503	-515	-1,019
JCE	-897	-39	-936
CJ E&M	-586	-222	-80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LG전자	435	30,833
삼성전자	7	7,921
엔씨소프트	22	5,526
POSCO	13	4,616
현대글로벌비스	19	4,306
호남석유	17	3,987
삼성전기	38	3,650
현대중공업	14	3,158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iMBC	217	1,755
다음	10	1,108
씨젠	10	692
게임빌	6	650
가비아	108	608
코오롱생명과학	6	474
메디투스	5	442
네오위즈게임즈	16	42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558	4,323,072
POSCO	8,208	3,012,280
LG전자	39,564	2,801,159
OCI	8,097	1,554,716
현대차	4,122	1,013,948
NHN	2,905	764,130
기아차	8,829	666,608
현대모비스	2,116	651,577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1,543	662,446
서울반도체	6,366	133,375
덕산하이메탈	2,677	58,631
네오위즈게임즈	1,744	45,268
인터플렉스	557	43,118
위메이드	744	42,609
차바이오엔	4,223	41,008
에스엠	586	32,87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기계	1,977	금융업	-1,823
운수장비	1,936	전기, 전자	-1,705
철강및금속	846	의약품	-907
LG디스플레이	1,236	SK하이닉스	-2,777
두산인프라코어	1,091	우리금융	-1,990
대한항공	908	한국타이어	-1,167
기아차	786	LG전자	-1,024
KEC	534	현대상선	-873
POSCO	488	대한전선	-669
동양철관	485	STX팬오션	-462
일진디스플레이	482	한진해운	-390
NHN	457	강원랜드	-362
넥센타이어	435	대영포장	-340

KOSDAQ			
	순 증		순 감
운송장비, 부품	681	금속	-269
종합건설	218	통신장비	-268
전문기술	208	통신서비스	-160
성우하이텍	681	인지디스플레이	-394
서희건설	232	영우통신	-167
인터파크	172	EMLSI	-165
파트론	159	한국정보통신	-160
루멘스	128	대동스틸	-141
슈프리마	127	네오퍼플	-112
웹젠	116	오스템임플란트	-97
서울반도체	98	홈캐스트	-95
오성엘에스티	96	인포피아	-89
쓰리원	95	심텍	-8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8/27(월)	08/28(화)	08/29(수)	08/30(목)	08/31(금)
외국인	11,638.4	4,999.4	-91.2	350.6	-114.6	-125.7	-152.7	-48.9
기관계	2,327.4	-124.6	-195.0	-124.1	-29.1	224.6	-171.3	-95.2
(투신)	-3,154.2	-1,723.0	-430.2	-289.0	-117.8	1.6	-39.9	14.8
(연기금)	647.0	1,060.5	588.2	42.2	75.3	239.7	124.4	106.6
(은행)	416.7	-46.1	3.6	-12.3	5.7	8.6	8.7	-7.2
(보험)	2,313.3	246.4	-41.0	25.8	26.3	19.2	-32.8	-79.6
개인	-10,246.4	-4,702.7	299.7	-194.2	145.2	-107.5	314.4	141.9
기타	-3,719.4	-172.1	-13.4	-32.3	-1.6	8.6	9.6	2.2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8/24(금)	08/27(월)	08/28(화)	08/29(수)	08/30(목)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19.81	1,917.87	1,916.33	1,928.54	1,906.38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8557.9	19033.3	18783.5	18558.7	18426.3
(증감액)	2735.7	1996.5	3611.7	-159.7	475.4	-249.8	-224.8	-132.4
(회전율)	52.6	51.5	34.2	36.5	43.7	37.1	40.7	41.9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241.7	361.4	-238.6	-411.3	-28.1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3711.1	3738.6	3761.6	3762.8	3787.3
미수금	240.2	192.3	187.7	161.9	140.8	146.0	167.6	151.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8/24(금)	08/27(월)	08/28(화)	08/29(수)	08/30(목)
전체 주식형	99,351	-3,890	-460	-54	19	199	140	-49
(ex. ETF)		-6,376	-1,652	-97	-24	71	-78	-50
국내 주식형	71,197	-1,626	-51	-31	41	198	153	-35
(ex. ETF)		-4,106	-1,243	-74	-2	70	-65	-36
해외 주식형	28,154	-2,265	-410	-24	-22	1	-12	-14
(ex. ETF)		-2,270	-410	-24	-22	1	-12	-14
주식 혼합형	10,813	-1,194	-358	-12	-6	1	-2	-6
채권 혼합형	18,397	218	-471	3	-5	6	0	-63
	47,805	620	814	84	-120	90	-159	-32
채권형	74,973	20,711	906	-1,127	-724	-1,052	166	-497
MMF	99,351	-3,890	-460	-54	19	199	140	-4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8/27(월)	08/28(화)	08/29(수)	08/30(목)	08/31(금)
한 국	10,615	5,509	-79	309	-	-111	-135	-42
대 만	621	1,717	-3	13	-69	33	-76	96
인 도	11,453	2,183	218	114	30	75	-	-
인도네시아	951	271	-92	1	2	-29	-66	-
태국	2,221	96	-82	-5	-1	-37	-38	-
남아공	-135	-851	-201	8	-121	-22	-66	-
필리핀	2,104	366	-32	-	-2	-9	-21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08/24(금)	08/27(월)	08/28(화)	08/29(수)	08/30(목)	08/31(금)
회사채 (AA-)	4.21	3.37	3.34	3.33	3.30	3.29	3.27
회사채 (BBB-)	10.01	8.69	8.67	8.67	8.64	8.63	8.62
국고채 (3년)	3.34	2.83	2.81	2.81	2.79	2.78	2.76
국고채 (5년)	3.46	2.93	2.91	2.91	2.88	2.87	2.86
국고채 (10년)	3.79	3.08	3.06	3.06	3.03	3.03	3.02
미 국채 (10년)	1.88	1.69	1.65	1.63	1.65	1.62	-
일 국채 (10년)	0.99	0.81	0.81	0.81	0.80	0.81	-
원/달러	1,151.80	1,134.10	1,135.40	1,136.70	1,133.40	1,134.00	1,134.70
원/엔	1,492.00	1,443.00	1,443.00	1,448.00	1,439.00	1,445.00	1,446.00
엔/달러	77.24	78.64	78.69	78.54	78.76	78.52	78.49
달러/유로	1.29	1.25	1.25	1.25	1.25	1.25	1.25
DDR3 1Gb (1333MHz)	0.64	0.66	0.66	0.66	0.66	0.66	-
NAND Flash 16Gb (MLC)	2.81	1.79	1.79	1.77	1.76	1.76	-
CRB 지수	305.30	306.04	305.89	306.91	307.12	306.51	-
LME 지수	3,306.0	3,262.1	3,262.1	3,247.2	3,221.9	3,204.5	-
BDI	1,738	717	717	724	718	707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95.85	95.44	96.33	95.49	94.62	-
금 (달러/온스)	1,566.80	1,670.70	1,667.70	1,667.40	1,660.70	1,653.8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209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증감
8월 27일	252.77	254.60	0.38	1.83	1.48	238,350	113,947	5,982
8월 28일	252.57	253.55	0.35	0.98	0.88	235,821	111,318	-2,629
8월 29일	254.22	254.80	0.33	0.58	0.78	149,257	111,318	0
8월 30일	250.96	250.50	0.31	-0.46	0.27	239,422	108,798	-2,520
8월 31일	250.56	250.10	0.30	-0.46	0.35	193,473	108,338	-460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8월 27일	-149	2,320	-2,013	-2,039	733	-164	-413	0
8월 28일	-22	-749	1,017	305	379	210	-307	0
8월 29일	-616	190	317	-717	669	-33	-33	0
8월 30일	-4,545	-1,089	5,649	3,041	102	232	97	0
8월 31일	-165	629	-95	-1,634	869	-271	-40	0
누적포지션	-8,945	13,694	-9,379	-3,946	-2,359	292	371	-3,617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8월 27일	570	1,371	801	548	987	439	23	384	362	6,409	10,782
8월 28일	541	490	-51	466	465	-1	75	25	-50	6,411	10,690
8월 29일	590	603	13	525	583	58	65	20	-45	6,433	10,666
8월 30일	895	450	-445	593	407	-186	302	43	-259	6,516	10,491
8월 31일	879	751	-129	637	707	71	242	43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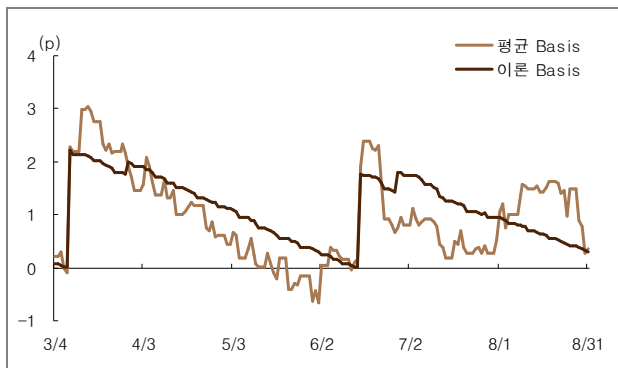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변동성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8.05	6,790	153,790	0.37	262.50	12.95	167	-46	26.77
18.02	3,690	168,934	0.65	260.00	10.65	374	-54	24.64
18.07	375	147,438	1.10	257.50	8.55	951	-253	23.31
18.06	3,680	157,191	1.75	255.00	6.55	4,021	67	21.79
17.99	138	43,268	2.64	252.50	5.05	9,810	-78	22.02
18.13	869	9,668	3.85	250.00	3.75	16,817	-646	22.07
18.00	88	3,990	5.30	247.50	2.75	124,511	-370	22.46
18.02	239	1,247	7.05	245.00	1.99	130,471	-2,143	23.01
18.58	18	72	9.10	242.50	1.42	99,078	271	23.62
22.23	21	83	11.60	240.00	1.00	108,223	1,240	24.27
23.60	2	2	13.90	237.50	0.70	70,895	12	2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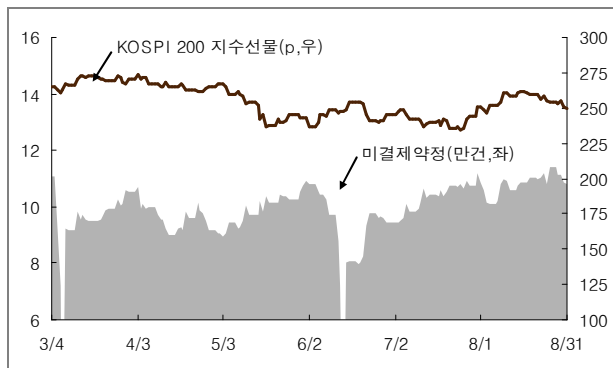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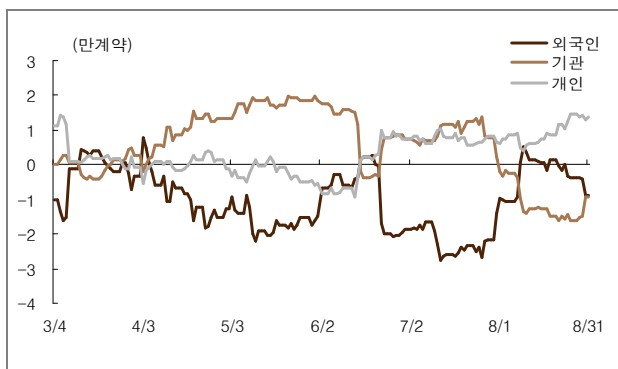
- 평균 Basis: 0.35 (전 거래일 대비 0.08 상승)
- 이론 Basis: 0.30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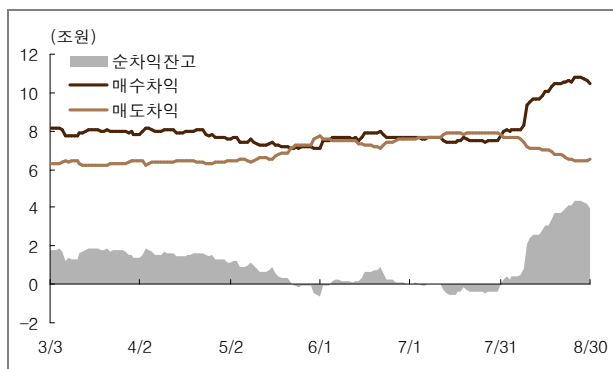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460 계약 감소한 108,338 계약
- 선물가격(250.10): 전 거래일 대비 0.40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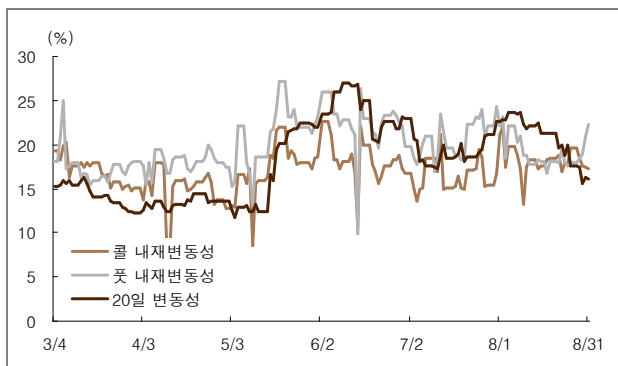
- 외국인: 165 계약 순매도
- 기관: 95 계약 순매도 / 개인: 629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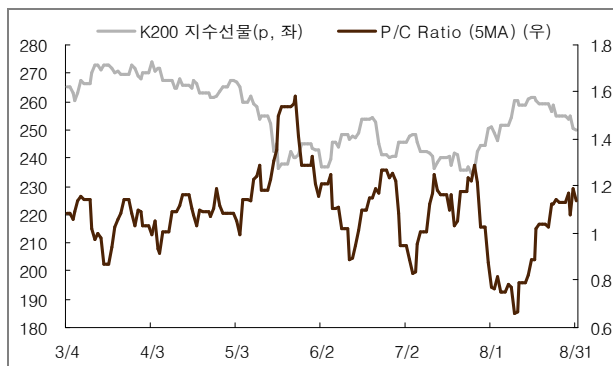
- 차익거래: 1,992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707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7.3% / 풋 22.3%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6.04%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14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7	28	29	30	31
韓> 8월 소비자자기대지수 (99, n/a, 100) 美> 공화당 전당대회(8/27-31)	美> 6월 S&P/CS주택가격지수 MoM (0.94%, 0.45%, 0.91%) 8월 소비자자기대지수 (60.6, 66.0, 65.9) 中> 7월 선행지수 (98.75, n/a, 99.28)	韓> 7월 경상수지 (\$6,103.8M, n/a, \$5,835.8M) 7월 상품수지 (\$5,316M, n/a, \$5,011M)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4.3%, n/a, -7.4%) 2분기 GDP 연간화 QoQ (1.7%, 1.7%, 1.5%) 7월 미결제주택매매 MoM (2.4%, 1.0%, -1.4%) Fed 베이지북 공개 유럽> 독일, 이탈리아 정상회담	韓> 9월 BSI 제조업 (75, n/a, 70) 9월 BSI 비제조업 (69, n/a, 69)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7.4만, 37.0만, 37.2만) 7월 개인소득 MoM (0.3%, 0.3%, 0.5%) 7월 개인소비지수 MoM (0.4%, 0.5%, 0.0%) 유럽> 프랑스, 스페인 정상회담	韓> 7월 산업생산 YoY (0.3%, 0.7%, 1.6%) 美> 잭슨홀 미팅 유럽> 7월 유로권 실업률 (n/a, 11.3%, 11.2%) 日> 7월 산업생산 YoY (-1.0%, 1.8%, -1.5%) 7월 실업률 (4.3%, 4.3%, 4.3%) 7월 국내 CPI YoY (-0.4%, -0.3%, -0.2%)
3	4	5	6	7
韓> (9/1) 8월 수출 YoY (n/a, -6.8%, -8.8%) (9/1) 8월 수입 YoY (n/a, -7.6%, -5.5%) (9/1) 8월 무역수지 (n/a, \$510M, \$2,746M) 8월 외환보유액(미확정) (n/a, n/a, \$314.35B) 8월 소비자자기대지수 YoY (n/a, 1.4%, 1.5%) 8월 HSBC 제조업 PMI (n/a, n/a, 47.2) 美> (9/3-7) 민주당 전당대회 유럽> EU의회에서 은행연합 관련 논의 中> (9/1) 8월 PMI 제조업 (n/a, 50.0, 50.1) 8월 PMI 비제조업 (n/a, n/a, 55.6) 8월 HSBC PMI 제조업 (n/a, n/a, 49.3)	美> 8월 ISM 제조업지수 (n/a, 50.0, 49.8) 7월 건설지출 MoM (n/a, 0.4%, 0.4%)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회담 실적발표> 美 캠페일 수프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4.3%) 유럽> 7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n/a, n/a, -1.2%) 트로이카, 그리스 재방문 실사 中> 8월 HSBC PMI 서비스 (n/a, n/a, 53.1)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7.0만, 37.4만) 8월 ADP 취업자 변동 (n/a, 14.0만, 16.3만) 8월 ISM 비제조업지수 (n/a, 52.5, 52.6) 유럽> 2분기 유로권 GDP QoQ (n/a, -0.2%, -0.2%) ECB 금리 공시 (n/a, 0.75%, 0.75%) BoE 금리 공시 (n/a, 0.50%, 0.50%)	美> 8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n/a, 12.0만, 16.3만) 8월 실업률 (n/a, 8.3%, 8.3%)
10	11	12	13	14
韓> 8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美> 7월 소비자자신용지수 연방의회 여름 휴회 종료 유럽> 9월 섉렉스 투자자기대지수 中> (9/9)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9/9) 8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9/9) 8월 산업생산 YoY (9/9) 8월 소매판매 YoY 8월 무역수지 8월 수출 YoY 8월 수입 YoY	美> 8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7월 무역수지 유럽> EU, 은행감독권한 통합 법안 발표 中> 8월 신규 위안 대출(미확정) 8월 통화공급 M2(미확정) 日> 8월 통화량 M2 YoY	韓> 8월 실업률 7월 통화공급 M2 MoM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8월 수입물가지수 YoY FOMC 회의(9/12-13) 유럽> 7월 유로권 산업생산 YoY 독일 현재 ESM 설립안 위원 판결 네덜란드 조기 총선	韓> 금통위 금리결정 선물 옵션 만기일 (9/13-14)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FOMC 금리결정 8월 월간 재정수지	韓> 8월 수출물가지수 YoY 8월 수입물가지수 YoY 美>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8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8월 산업생산 MoM 9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7월 기업재고 MoM 유럽> 8월 유로권 CPI YoY 유로존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 트로이카-그리스 재정긴축 합의 시한 (9/15) 스페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中> 8월 실질 FDI YoY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